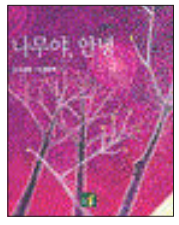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나무야 안녕 = '접시꽃 당신'으로 잘 알려진 도종환씨가 펴낸 동화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을 수 있다. ছুগু গু জুয়ল জিন জ দুনাযুগ সৈৰাংগা জদু হানাল কুইনৈগাকাজি ইয়াকু লুগে সৈমিংগ সোজুগল ইগৈকুনা.



▲붉은 땅의 기억 = 중국 문화대혁명 (1966~1976년)을 겪은 저자의 청소년 시절 경험담을 담담하게 그린 논픽션 동화다. 아버지가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반동분자로 몰린 소년 장안거가 방황과 역경을 딛고 화가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한국사를 뒤튼든 20가지 전쟁(전2권) = 고조선 시대부터 남북 분단까지 한국사를 바꾼 전쟁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가상일기와 인터뷰, 일살스런 만화와 그림을 곁들여 딱딱한 전쟁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어린이 박물관 백제 = 우리나라 역사에서 700년간 존속하며 고대 삼국의 한 축을 세운 백제의 문화적 특징을 쉽고 재미있게 담아냈다. 국립 부여박물관이 백제의 옛땅과 백제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샬롯의 거미줄 = 영화로도 상영돼 친숙한 이 책은 지난 1952년 출간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4천500만부가 판매된 아동문학의 고전이다. 영화의 주요 장면들로 이루어진 스토리 북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 처럼 생생하다.



▲아파트 공화국 발레리 줄레조 지음. 책은 지난 2003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인 독자들에게 맞게 다시 쓴 것이다. 학위논문이 바탕이어서 다소 딱딱하게 느낄 수 있지만, 독자를 비롯한 풀어나가는 방식이 고전적일 뿐 내용은 흥미롭다.

아파트, 왜 한국에서만 융성할까?

아파트공화국 발레리 줄레조 지음



지난 2005년 가을 프랑스 파리의 외곽에서 발생한 소요사태는 대형 화재, 경찰과의 시인들과의 대치, 폐허가 된 주차장 등이 TV와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그 배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사태의 발단이 된 주동자들 역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1960~70년대에 지어진 이들 대단지 아파트는 폭력과 위협의 진원지로 알려지며, 프랑스 도시 정책 또는 주택 정책의 실패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서울의 알짜배기 땅에 호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여겨지는 아파트 단지가 유독 한국에서만 융성(?)하는 이유가 뭘까.

'아파트 공화국'은 프랑스 지리학자의 눈으로 본 한국 아파트 단지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1993년 한국을 첫 방문해 서울 시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보고 깜짝

놀란 뒤 '한국의 아파트'를 자신의 연구 주제로 삼았다. 책은 지난 2003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인 독자들에게 맞게 다시 쓴 것이다. 학위논문이 바탕이어서 다소 딱딱하게 느낄 수 있지만, 독자를 비롯한 풀어나가는 방식이 고전적일 뿐 내용은 흥미롭다. 특히 아파트 가격 잡기가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현실에서 아파트의 미래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저자는 연구를 위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발로 뛰며, 주민과 관리소 직원 등을 상대로 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국민 선호하는 이유·도시와의 관계 등

佛 지리학자가 본 한국 아파트 현주소

〈후머니티스·1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프랑스에서 실패한 주거모델인 아파트가 어떻게 한국에서는 온 국민이 열망하는 주거 형태가 됐는가. 사진은 광주 첨단지구 아파트 단지. (광주일보 자료사진)

커뮤니케이션 역사로 보는 인류 문화사

동굴벽화에서 만화까지 호그벤 지음



북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어린이의 낙서는 아이의 생각을 담고 있어 심리 치료에도 종종 이용된다. 그림은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훌륭한 수단 중 하나다.

'동굴벽화에서 만화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인류의 문화사를 쫓고 있다. 저자 랜슬롯 호그벤은 언어학, 천문학 등 다학문에 능통한 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번역은 김지은 성공관대 교수가 맡았다.

저자는 "인류 역사는 곧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라는 다른 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삶과 문화 변천을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림, 사진, 만화책 등 128점의 풍부한 그래픽 자료로 제공하며 문자를 해독하는 보조수단으로서의 그림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북스·2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발로 직접 쓴 로마 제국의 역사

로마제국을 가다 최정동 지음



1996년 로마에서 "카이사르에 열광했던 독자들이 잊었던 아우구스투스를 흥미롭게 읽을까요?"라는 물음을 던졌던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모노 나니미를 만난 저자 최정동은 이후 10년 동안 로마라는 학교의 학생이 되었다. '연암 박지원과 열하를 가다'의 저자이기도 한 최 씨는 이후 많은 책과 자료를 읽고 로마제국의 영광이 어려웠던 옛 갈리아, 게르마니아, 히스파니아 땅을 발로 훑었다. 현재의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와 바로 그 땅이다.

여행의 결과물을 묶은 '로마제국을 가다'는 관광객들이 몰리는 유명한 관광지보다 흥미로운 일화를 담은 유적지를 중심으로 역사의 숨결을 담았다. 특히 책 마지막에 실린 '이제, 이런 책도 읽어보는 건 어떨는지요' 코너는 '로마인 이야기' 등 로마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책을 꼼꼼히 소개해 눈길을 끈다. 〈힐잡스·1만8천원〉 /김미근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윤명철 '역사전쟁'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지난 수천년동안 우리와 이웃하면서 갈등과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지속해 온 나라이다.

그런데 중국이 중화주의와 애국주의로 재무장하고 우리의 자존심인 고구려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명철의 '역사전쟁'은 2천년대 들어 중국이 중화패권주의와 애국주의로 재무장하고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고구려는 물론, 발해의 역사까지도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는 경제단체에 20여년간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패권주의를 알세운 역사전쟁이 경제 및 통상분야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고대로부터 한·중간에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상품교역은 아니나 조공무역의 형태로 어느나라보다도 가장 활발히 교역이 이루어져 왔다. 2004년 이후에는 우리의 제1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행히 기술 및 품질면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무역역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이 급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중국을 앞서고 있는 동안에는 잠잠한 것처럼 보이나 앞으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게 되면 경제에서도 중국의 패권주의가 등장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본다.

그동안 역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일본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

고구려는 우리의 자존심이다



여 왔으나 중국과는 큰 마찰이 없었다.

그러나 이 책을 접하고 필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와 마찬가지로 역사관계도 영원한 우방도 적대국도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저자는 현재 만주지역 역사를 배경으로 중국과 남북한, 주변국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역사전쟁'이라고 부르고 그 허구와 진실을 낱알이 파헤치고 있다.

중국은 벌써 10여년 전부터 치밀하게 자국이 비교적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료를 바탕으로 고구려의 자료를 재정리하면서 체계적인 논리를 세워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너무 감정만이 앞서 있고 자료 및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중국의 논리를 충분히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고구려의 많은 부분이 현재의 중국영토에 포함되어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간 우리의 역사 연구가 신라사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고구려 연구에 소홀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 책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위협이 너무 과장되어 있고 상황설정이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주변정세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안별로 상세히 분석해 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수천년동안 우리를 짓눌러 왔던 거대한 중국과 다시 힘겨운 싸움에 본격 돌입했다는 느낌이 든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과거와 연을 맺은 현대이고 순간순간 맞이하는 미래 그 자체다. 고구려는 우리의 자존심이며 우리의 미래인 동시에 그동안의 약소민족의 굴레를 벗어나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배경과 근거이다.

고영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최고품질의 황토를 사용한 황토떡. 휴철대에도 격(格)이 있습니다. 황토떡을 맛있게 즐겨주세요. 황토떡. 黃土. (062) 262-2278

국제외식산업(주). 맛과 맛을 새롭게... 아이 결혼식 가능. 관광버스음식 대절. (062) 262-2278